

살인기업 구속 처벌

정부 동물실험에서 독성확인 안돼 경찰기소에서 제외됐지만,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만을 사용하다
사망했거나, 부산의 4세 어린이처럼 '관련성 확실' 판정에
목 뚫어 호흡해야 하는 심각한 피해도 있다.

애경 제품사용 후 가족 4명 모두 천식으로 고통받는 경우도

1-2차 조사에서만 사망27, 상해 101명으로
옥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피해자 낸 살인기업 애경,
장영신 전대표이사 등 19명의 전현직 임원 구속처벌해주세요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는 1997년부터 출시되어 20여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중에서 가장 먼저 판매되기 시작한 제품이다. 1994년 유공이 처음 개발한 가습기살균제가 [가습기메이트]였다. 1997년 애경은 유공의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인수해 판매하기 시작했고, 1998년 유공은 SK로 바뀐 뒤에도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원료를 계속 공급한다.

참고로 1998년 처음 출시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가습기살균제는 당시 동양화학의 생활용품사업부 옥시가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했고 2001년에 영국의 레킷벤키저가 인수해 계속 판매했다. [가습기메이트]에 이어 두번째로 판매된 제품이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다

정부의 1-2차 조사결과 [가습기메이트] 제품사용피해자¹는 사망 27명 생존환자 101명으로 모두 128명의 피해자를 내 [옥시싹싹]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2015년 12월말까지 정부가 공식 접수한 피해신고자와 2016년 1월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실로 접수된 피해신고자를 합한 3차 피해신고자는 모두 959명이다. 3차 피해신고자가 사용한 제품은 정부

¹ 참고로, 사용자들이 2가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별 사용피해자는 실제 피해자수보다 많다.

조사가 끝나야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있다. 잠정적으로 1-2차 피해자의 제품사용비율을 3차 신고자에 적용해 추산해보면, 1-3차 애경제품 피해자는 모두 293명으로 늘어난다. 이중 사망 39명, 생존환자 253명이다.

이마트의 가습기살균제 PB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는 애경이 제조해 공급했다. 이마트 제품의 피해자는 1-2차 조사과정에서 사망 10명, 생존환자 29명 등 모두 39명이다. 3차 피해신고자 중에서 이마트 사용피해자를 추산하면 이마트 피해자는 1-3차 모두 합해 사망 15명, 생존환자 73명 등 87명으로 늘어난다.

애경이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와 애경이 제조해 이마트가 판매한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 두 가지 제품의 사용피해자는 1-2차 피해자 167명(사망 37명)으로 늘어난다. 3차 신고자중에서 [가습기메이트]와 [이플러스] 사용피해자 추산까지 합하면 380명(사망 54명)이다.

애경 관련 가습기살균제	1-2차 조사결과			3차 신고접수중추산 (2016년 1월접수 포함)		1,2,3차 합계	
	계	사망자	사망193중 제품별비율 (%)	계	사망88중 제품별 사 망자 추산	계	사망자
[가습기메이트] 애경 제조판매	128	27	14.0	165	12	293	39
[이플러스] 애경제조 이마트 PB	39	10	5.2	48	5	87	15
계 (제품중복사용포함, 제품중 류확인안된피해사례 제외)	167	37	19	213	17	380	54

애경 제품 사용피해자가 이렇게 많지만 애경은 2015년 8월 경찰이 제조사를 기소해 검찰에 넘길 때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부가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제품별 독성을 파악하기 위해 동물실험한 결과 옥시싹싹이나 세퓨제품과 달리 실험쥐에게서 폐섬유화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강제 리콜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경찰은 정부조사를 바탕으로 형사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중에 판매된 가습기살균제는 모두 20개가 넘는데 이중 건강피해자를 발생시킨 제품은 15개이고 이중 사망자를 발생시킨 제품은 11개이다. 이들 제품은 크게 3가지의 살균성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의 제품은 PHMG라는 화학물질을, 세퓨와 아토모가닉은 PGH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했다. 애경과 이마트 그리고 GS, 다이소(산도깨비) 제품은 CMIT/MIT라는 화학물질

을 사용했다. 독성학 전문가들이 여러 관련 자료를 평가한 결과를 보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3가지 화학물질중에서 PGH가 독성이 가장 강하고, 다음은 PHMG였고 CMIT/MIT는 독성이 가장 약했다. 1-2차 판정결과 CMIT/MIT 제품사용자 대부분은 3등급인 '가능성 낮음' 판정이나 4등급인 '가능성 거의없음'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5년 초반까지 전문가들은 CMIT/MIT를 넣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으로 사망이나 중증피해가 나오기 힘들다고 봤다. 피해자의 절반이상이 2개 이상의 제품을 섞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CMIT/MIT제품 사용피해자의 경우 실제로는 PHMG나 PGH를 넣은 제품의 독성이 나타난 것으로 봤다.

그러다가 2015년 8월 애경 제품만을 사용하다 정부의 2차 조사에서 '가능성 높음' 2단계 판정받은 대구거주 성인환자가 사망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143번째 사망이었다. 또 부산에 거주하는 4세 쌍둥이 여아 2명이 정부 2차조사에서 '관련성 확실' 1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중 언니가 호흡곤란이 심해 목에 구멍을 내 산소호흡기로 호흡해야 하는 심각상태인데 이 쌍둥이는 모두 집에서 애경제품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CMIT/MIT 제품만 사용한 경우에서도 정부지원대상인 관련성 높은 1,2등급 판정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고, 이들 중 사망자와 중증 피해자가 나타나자 정부조사에 참여해온 독성 전문가들과 의료계, 보건학계 전문가들은 CMIT/MIT 제품에 대한 기존의 조사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정부의 1차 조사 때부터 참여해오고 있는 위해성평가 전문가 김용화 박사는 "초기엔 CMIT/MIT 제품 사용자들에게서 1-2단계 등급판정이 거의 없었고 동물실험에서도 폐섬유화가 나타나지 않아 CMIT/MIT 제품의 인체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CMIT/MIT 제품 단독 사용자들 중에서 1-2단계 판정이 여럿 나오고 있고, 이들 중 사망한 사

레도 있으므로 제품위해성에 대한 자료의 추가조사 및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1차 조사위원회 책임자인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CMIT/MIT 사용자들에게서 천식과 비염 호소율이 매우 높는데 이들은 대부분 관련성이 낮거나 없다는 3-4등급 판정이 내려졌다. 현재의 판정기준이 폐손상만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인데,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천식이나 비염을 일으킬 수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판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CMIT/MIT를 사용한 제품의 주요 피해사례를 소개한다.

■ 피해사례1;

- 피해자; 대구거주 성인남성, (1977년생)
- 정부판정등급; 2015년 4월 2차조사에서 2등급 ‘가능성 높음’ 판정
- 피해정도; 2015년 9월 사망(38세), 2005년 가습기살균제 사용하다 쓰러진 후 산소호흡기 착용하며 10년간 투병, 병원서 폐이식 권유받고 기다리다 사망.
- 사용제품; 애경 가습기메이트

■ 피해사례2;

- 피해자; 경기거주 영아
- 정부판정등급; 2015년 2차조사에서 4등급 ‘가능성 없음’ 판정
- 피해정도; 사망
- 사용제품; 애경 가습기메이트

■ 피해사례3;

- 피해자; 서울거주 성인여성
- 정부판정등급; 2014년 1차조사에서 3등급 ‘가능성 낮음’ 판정
- 피해정도; 7년째 산소호흡기 착용하고 휠체어 타야 하고 외출을 하지 못함.
- 사용제품; 애경이 제조공급한 이마트 PB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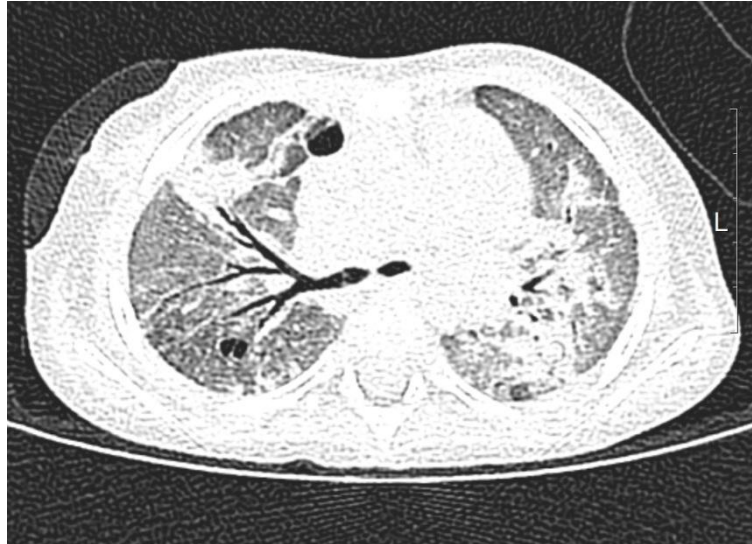
■ 피해사례4;

- 피해자; 경기거주 가족피해자
- 정부판정등급; 2014년 1차조사에서 4등급 ‘가능성 거의없음’ 판정
- 피해정도; 엄마, 아빠, 아이2명 등 가족 4명 모두 천식발생
- 사용제품; 애경 가습기메이트

■ 피해사례5;

- 피해자; 부산거주 4세 쌍둥이 여아 (2011년생)
- 정부판정등급; 2015년 4월 2차조사에서 1등급 ‘가능성 확실’ 판정
- 피해정도; 언니는 호흡곤란이 심해 목에 구멍을 내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어야 함.

➤ 사용제품; 애경 가습기메이트



<사진, 2016년 2월 목에 호흡기를 착용한 채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박나원양(왼쪽), 2013년 박양의 폐CT사진을 보면 양쪽 폐야에 전체적으로 공기기관지조영상과 광범위한 침윤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폐포가 터져 발생하는 기포도 관찰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이 2015년 8월 검찰에 넘기는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습기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했고, [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공급한 애경의 전현직 임직원 19명을 수사에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며 서울지검에 고발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책임을 물은 애경의 피고발인 19명은 1997년 제품을 처음 판매한 해부터 현재까지의 전현직 등기임원으로 장영신 전대표이사와 안용진 현대대표이사 등 전현직 대표이사 6명과 이사 및 감사 13명이다.

애경의 전현직 임원을 고발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CMIT/MIT 성분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사들이 경찰의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들 제품 사용자들 중에서 1-2등급의 판정을 받고 사망하거나 중증 피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들 제조사를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사망과 폐이식과 같은 매우 심각한 건강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다뤄져 오면서 천식이나 비염과 같은 호흡기계 건강피해와 폐이외 장기의 건강피해 문제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정부조사에서 관련성이 낮거나 없다는 판정을 받아 정부지원도 받지 못하고

검경의 수사에서도 제조사가 제외되어 왔는데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요구이다. 검찰조사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짚어지고 나아가 정부가 추가로 조사하도록 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015년 3월 7일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내용문의;

- 1)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2)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안성우 010-2847-3004

애경산업 주식회사 전현직 임원 19명 명단(1997~2016 3월 현재)				
출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직함	이름	국적	취임	사임
이사	김영우	대한민국	1994-03-29	1997-12-31
이사	유순종	대한민국	1997-03-03	1998-03-31
이사	김승호	대한민국	1997-03-03	1998-06-15
감사	채형석	대한민국	1993-05-21	1999-12-20
대표이사	장영신	대한민국	1999-03-31	1999-12-20
이사	장영신	대한민국	1993-05-21	1999-12-20
이사	조서환	대한민국	1997-03-03	2001-11-15
대표이사	채형석	대한민국	1999-12-20	2002-03-27
이사	이종기	대한민국	1999-03-31	2002-10-31
이사	서충석	대한민국	1994-03-29	2002-12-31
이사	공우식	대한민국	2000-03-27	2003-12-24
이사	김석원	대한민국	1997-03-03	2003-12-24
이사	이한명	대한민국	2002-03-27	2003-12-24
이사	최영보	대한민국	1997-03-03	2008-03-17
이사	백인섭	대한민국	1993-05-21	2009-03-16
이사	최창활	대한민국	1997-03-03	2009-03-16
이사	채형석	대한민국	1999-12-20	2009-05-31
대표이사	최창활	대한민국	2007-03-22	2010-01-01
사내이사	최창활	대한민국	2009-03-16	2010-01-01
대표이사	고광현	대한민국	2010-01-01	2011-03-21
대표이사	안용찬	대한민국	1995-06-24	2011-03-21
이사	고광현	대한민국	2008-03-17	2011-03-21
이사	안용찬	대한민국	1993-10-26	2011-03-21
감사	장영신	대한민국	1999-12-20	현재
대표이사	안용찬	대한민국	2015-03-23	현재
사내이사	고광현	대한민국	2011-03-21	현재
사내이사	안용찬	대한민국	2011-03-21	현재
사내이사	이석주	대한민국	2013-07-01	현재
사내이사	장우영	대한민국	2010-01-01	현재
사내이사	조인식	대한민국	2009-05-31	현재
사내이사	채형석	대한민국	2013-07-01	현재